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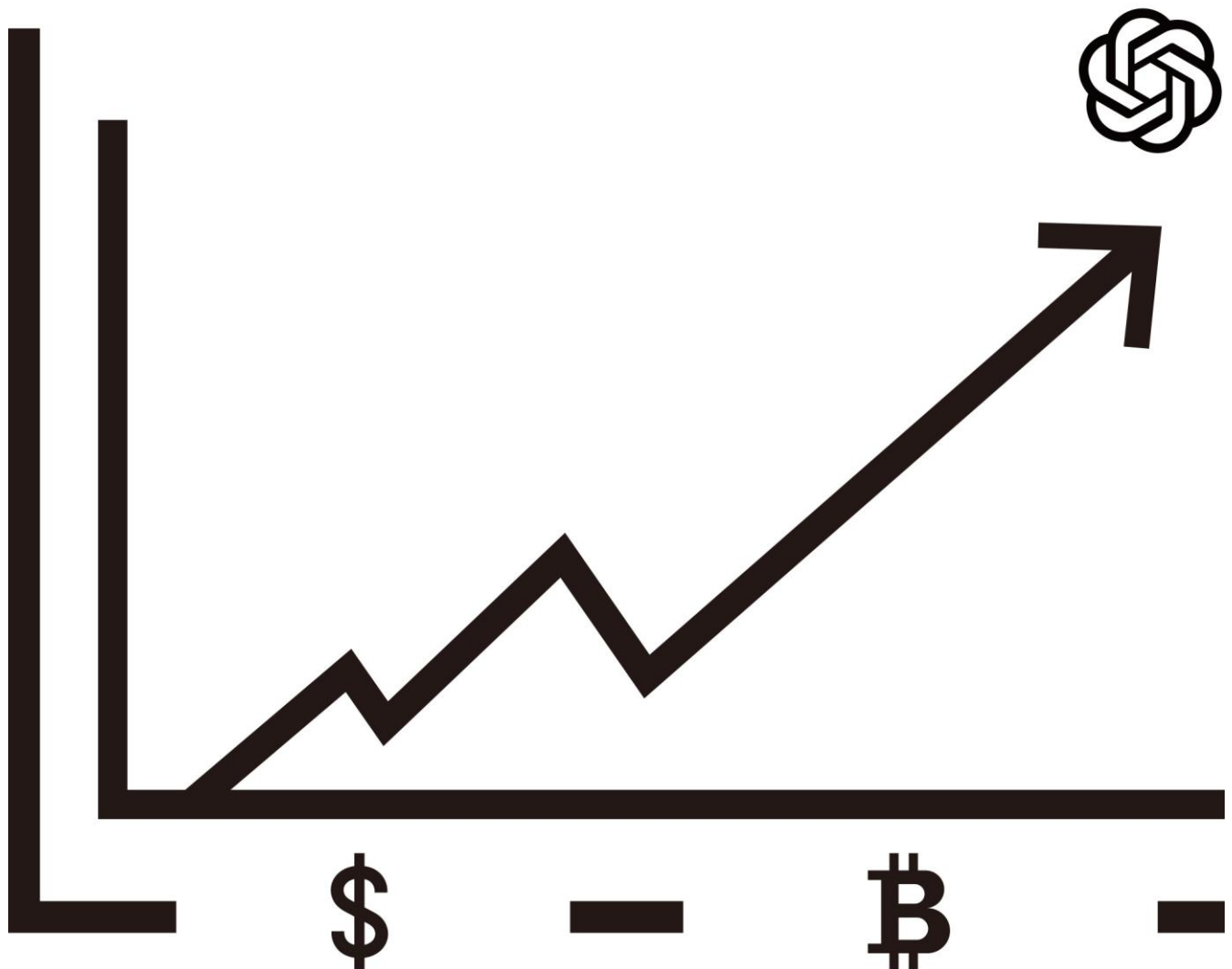
고유가와 중국

오늘의 차트

중국 수출 서프라이즈 점검

칼럼의 재해석

저가 드론 시대와 천궁-II의 실전 증명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고유가와 중국

- ✓ 고유가가 중국 경기에 주는 충격: 10달러 상승마다 -0.2%, PPI는 10% 상승마다 -1.4%
- ✓ 비축유 방출, 석탄 자원 활용 및 러시아/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증가 등 대안으로 기타 국가 대비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 ✓ 전쟁 이후 친환경 구축 수요 증가 → 중국 ESS, 전기차, 변압기 대표 수출기업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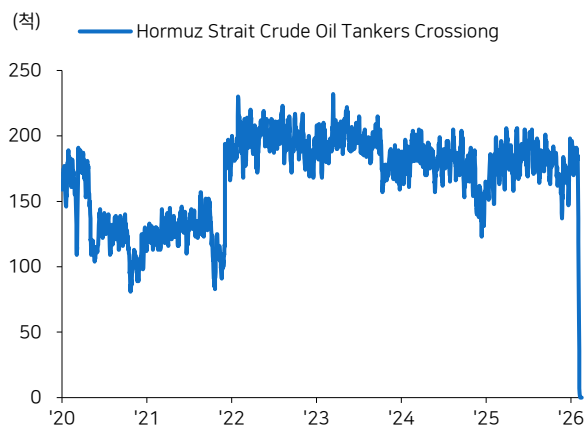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글로벌 고유가 장기화 위험 상승

중동 전쟁이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 시장은 아직 단기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3월 중순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평시 대비 95%이상 급감하면서 ‘사실상의 전면 봉쇄’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 경우 유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마비가 발생하며, 글로벌 유가가 일제히 폭등하는 에너지 쇼크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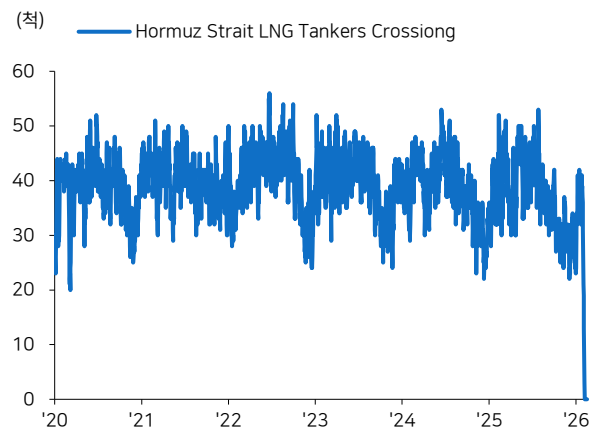
유일한 대안이었던 UAE의 푸자이라(Fujairah) 항구마저 최근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안전한 우회로는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원유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로 격상시켰다.

그림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수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LNG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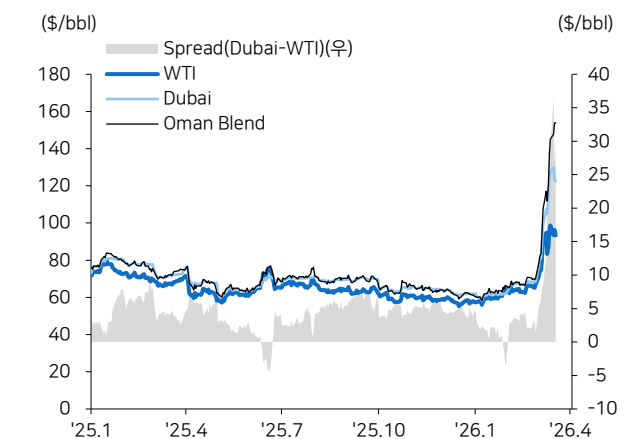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대다수 제3국들은 여전히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채 관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며 정전과 안정을 강조하는 원론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승전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신중한 태도다. 특히 주요 아랍국들은 자국 영토가 전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황이 미·이 측에 유리하면 서방에 협력하고, 미군이 열세에 처하면 오히려 이란의 손을 들어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기회주의적 실용 노선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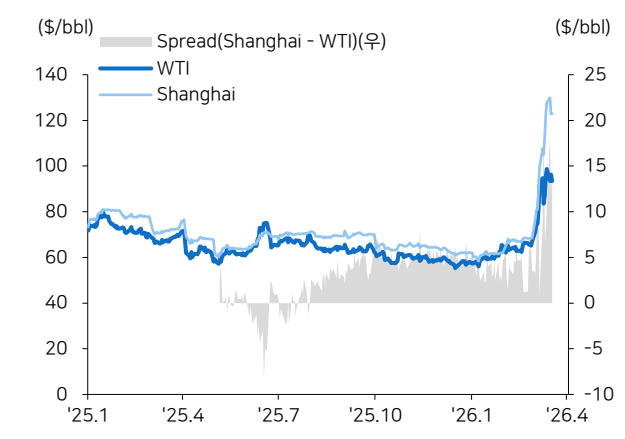
미·이 연합군과 이란 양측 모두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해협 봉쇄를 추진할 유인이 현재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기 낙관치 않다. 현재 지정학적 피해 여부로 아시아계 유가(두바이, 오만, 상하이 등)와 국제 유가(WTI, 브렌트 등)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전쟁 국면이 길어진다면 이 스프레드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3, 4).

그림3 중동 유가와 국제 유가 차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상하이와 국제 유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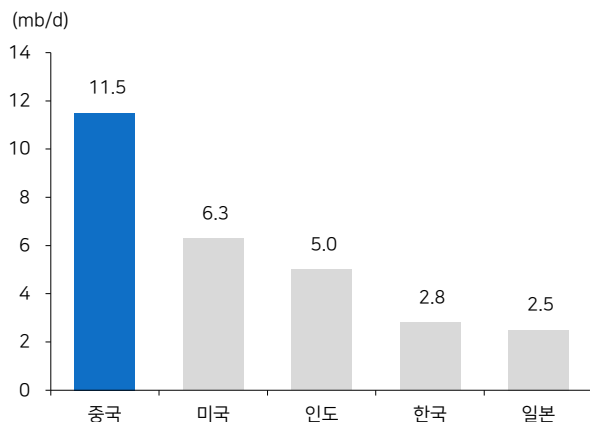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고유가가 중국 경기에도 주는 충격

중국은 전세계 원유 수입국 1위 국가이다. 일 평균 수입량은 약 1,150만 배럴로, 미국의 2배 가까이에 달한다. 비록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화학 제품 자급률을 빠르게 높이면서 원유의 연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수입 의존도도 73%까지 늘었다(그림 6). 이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약 36~40%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로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면 중국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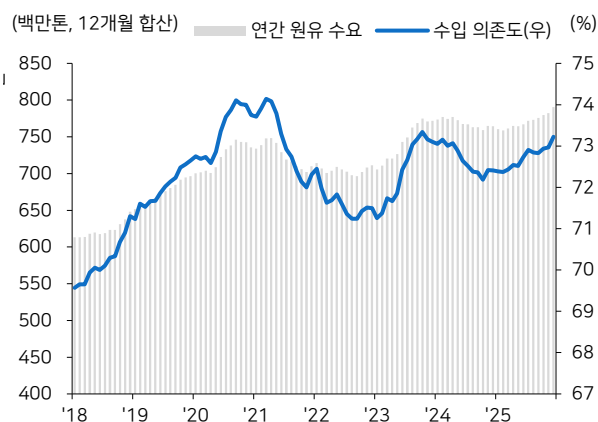
현재 중국 PPI(생산자물가)에서 석유와 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조사된다(그림 7). 과거 국제 유가와 중국 PPI 전년동월비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12년과 2022년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높았다(그림 8). 올해 중국 부동산 경기의 추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가 상승이 중국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그림5 2025년 전세계 원유 수입량 Top5 국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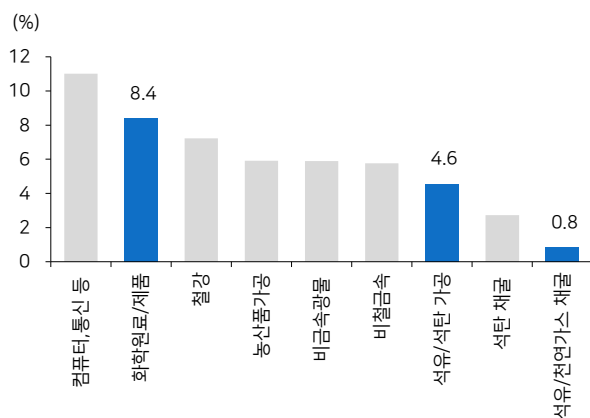
자료: IEA Oil Market Report(2026.03), US EIA STE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의 원유 수요량 매년 증가, 수입 의존도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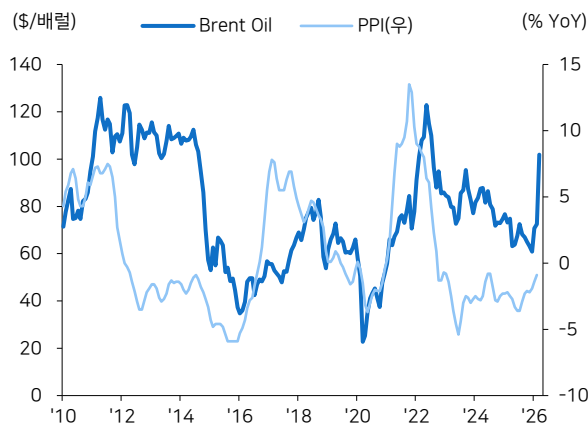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 PPI 내 석유 및 화학 관련 제품 비중:



자료: Galaxy Securiti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제 유가와 중국 PPI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유가가 10 달러씩 상승할 때마다 중국 GDP 성장률에는 -0.2%p의 충격을 줄 수 있다(중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 42억 배럴을 기준으로 계산). 또한 생산자물가(PPI) 중 원유 및 화학제품의 비중이 1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유가가 10%씩 오를 때마다 PPI는 1.4%p씩 상승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즉 현재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유가 100 달러 이상부터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표1 유가 변화가 중국 GDP와 PPI 상승률에 미치는 효과

유가 시나리오 (\$/bbl)	GDP 충격(pct)	PPI 상승 효과(%p)	비고
70-80	0	-0.5 ~ 0.0	
80-90	-0.21	0.50 ~ 1.75	PPI 플러스 전환, 비용 압박 상승
90-100	-0.42	1.75 ~ 3.50	제조업 공급망 마진 압박 뚜렷
100-110	-0.63	3.50~5.25	제조업 경기 임계점
110+	>-0.63	>5.25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대응 여력과 중장기 대안: 주변국 대비 충격은 제한적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유가가 중국 경기에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약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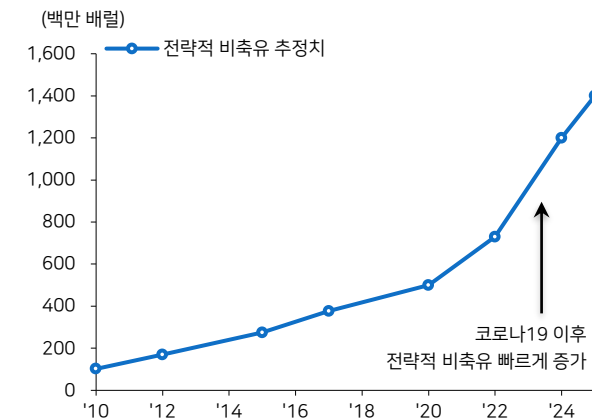
첫째, 비축유 방출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부터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전략적 비축을 빠르게 늘렸다. 현재 중국의 원유 비축량은 125일로 추정되며, 유럽의 주요국인 프랑스(95일), 독일(90일)보다 양호하다.

둘째, 일본,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에너지원 중 석탄 비중이 높고, 석탄화학도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70~80 달러를 상회하면 석탄화학의 원가 경쟁력이 납사 크래커(NCC)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중국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의 약 25~30%가 석탄 기반으로 확보되어 있고, 석탄은 중국 내 자급이 가능하다. '22년 러-우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에도 중국은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낮은 가격의 석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대의 CPI를 유지했다(그림 11).

셋째, 수입 지역의 진일보 다원화이다. 이미 러시아, 브라질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비중이 '11년의 10%에서 '25년 26%까지 상승했는데, 향후 이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그림 12). 특히 1) 이번 해상 리스크를 상쇄하고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로 수입을 늘릴 것이며, 2) 결제 수단도 위안화로 바뀌 외환 리스크와 제재 위협에도 방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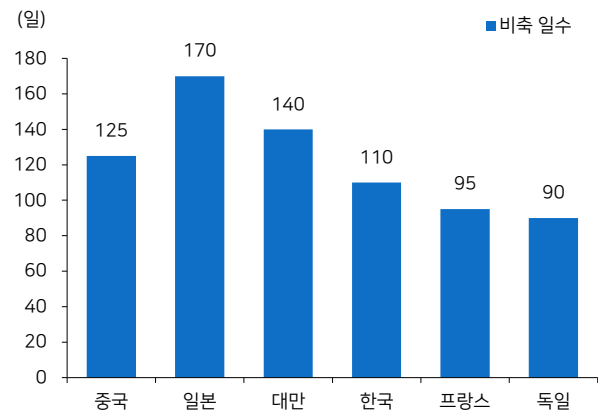
정리하면 전세계 최대 원유 소비 국가로 중국도 이번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지만, 유럽 및 아시아 주변국 대비 그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9 중국의 전략적 비축유: '20년 이후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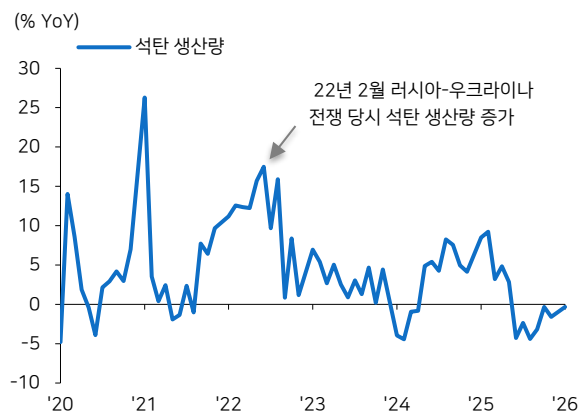
주: 정부와 민간 합산액 기준
 자료: IEA, EIA, Kpler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요국들의 원유 비축일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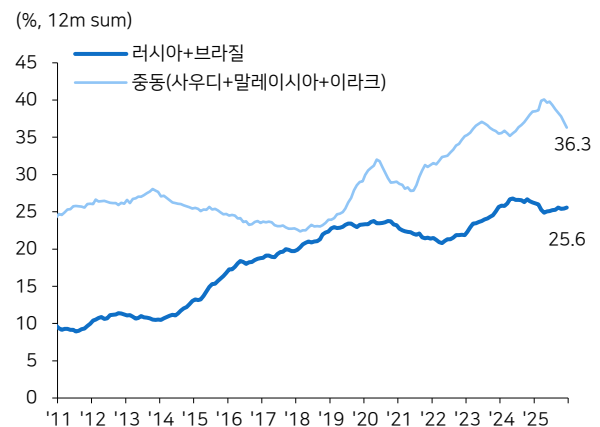
주: 정부와 민간 합산액 기준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중국의 석탄 생산량: '22년 생산 증가 통해 유가 압력 방어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와 브라질 수입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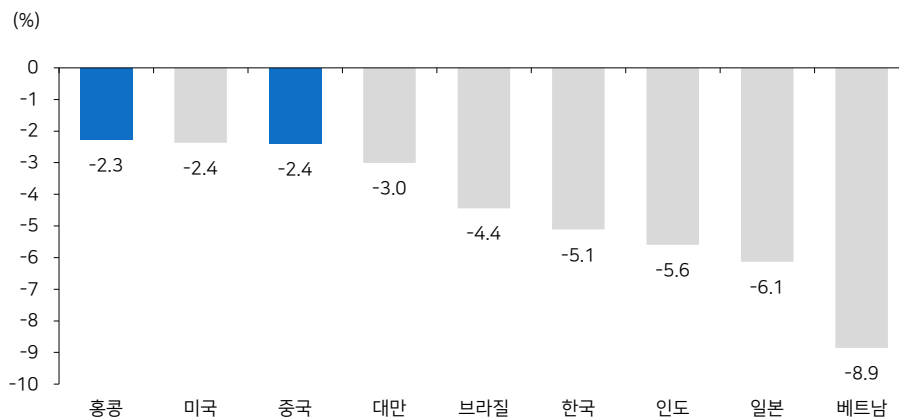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전쟁 이후 친환경 구축 수요 증가 → 중국 선두기업 수혜

중화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다.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 증시의 대표지수 하락폭은 2%대에 그치며, 기타 아시아 국가 대비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이는 연초부터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유가에 대한 대응 여력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증시는 에너지와 소재 등 전통 산업의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감이 지수 하방을 지지한 측면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3월 양회가 폐막되었으며 기대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1개월 미루어져 정책 모멘텀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숲 보다는 나무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3월부터 홍콩기업들을 시작으로 상장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변화에 따라 업종별, 기업별 차별화 양상이 예상된다.

그림13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대표지수 주가 변동폭: 중국 상대적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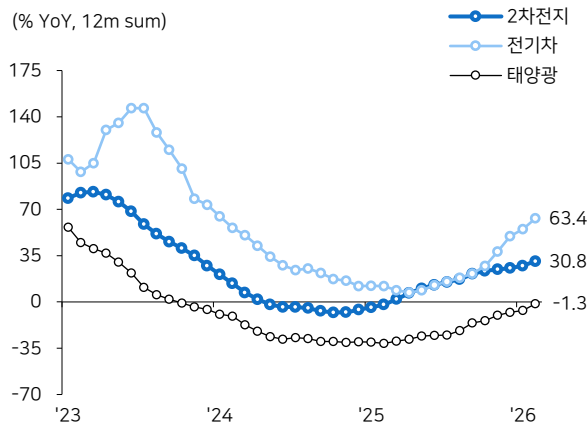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ESS, 전기차, 변압기 대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여러 대안 중 한가지는 친환경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전세계 친환경 특허의 30%, 제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해외수출 대표 품목들인 2차전지, 전기차 및 태양광의 수출액 증가율이 24년을 바닥으로 반등 중이다(그림 14). 이 중 전기차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자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 1년간 수출액이 63.4% 상승했고, 2차전지는 과거 LFP 주도에서 현재 ESS 주도로 수출액이 연간 31% 늘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의 변압기 수출액 증가율도 '22년의 15%에서 현재 34%까지 상승하며 수출 호조를 누리고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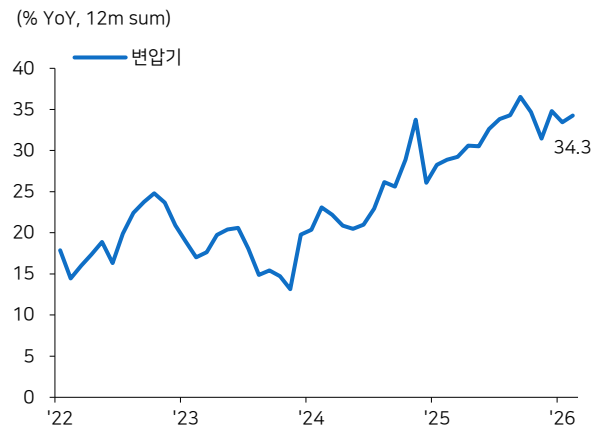
지역별로도 올해 1~2월 對 아세안(+29%), 라틴아메리카(+22%), 유럽(+28%)의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연초 유럽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실시한 ‘트럼프 2기 정부와 글로벌 영향력’ 관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1개국 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압도하거나 대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남아공(83%), 브라질(72%), 터키(63%) 등 신흥국들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중국의 Non-US향 수출 호조는 향후 1~2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각 영역의 대표기업들은 CATL(ESS)(300750.SZ, 3750.HK), 비야디(전기차)(002594.SZ, 1211.HK), 스웬전기(변압기)(002028.SZ)이다.

그림14 중국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수출액 증가율 반등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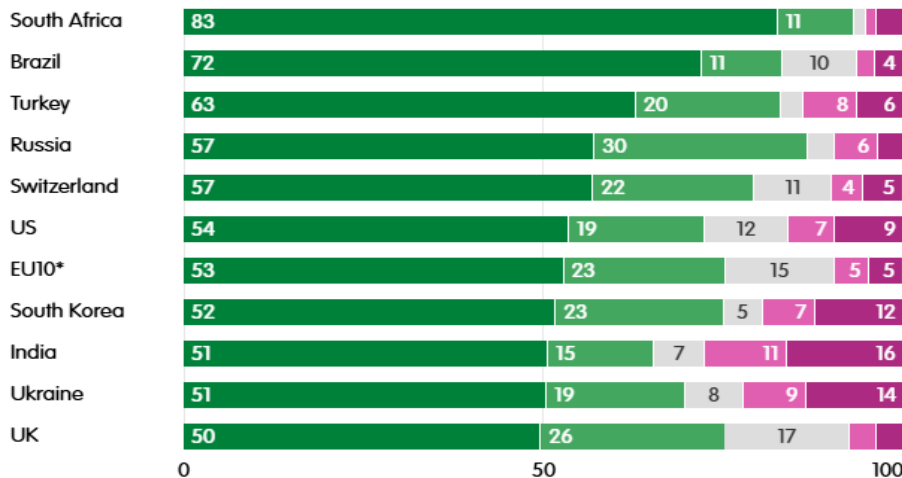
그림15 중국 변압기 수출액 꾸준히 상승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향후 10년 내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 More global influence
- No change—it has global influence now and still will
- Don't know or refuse to answer
- No change—it does not have global influence now and still will not
- Less global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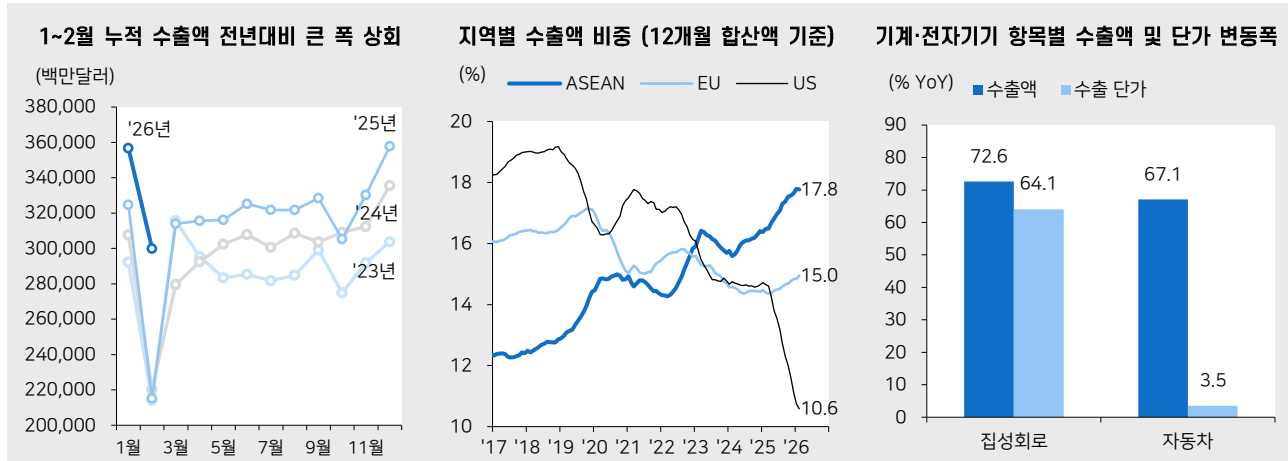


주: EU10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
 자료: ECF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최선휘 연구위원

중국 수출 서프라이즈 점검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8% 급증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긴 춘절 연휴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망치(+7.2%)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24년 1월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도 동기대비 19.8%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26.2% 증가한 2,136.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가능할지 중국 수출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 ASEAN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5년 4월 이후 지속된 하락세 끝에 현재 미국향 수출 비중은 10.6%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Non-US 국가로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아세안향 수출액 비중은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락하던 EU향 수출은 반등 추세를 보이며 15%에 안착했다.

품목별로는 기계·전자기기(+26.9% YoY)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글로벌 메모리 가격(P)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으며, 자동차는 1~2월 동기대비 57.9% 증가한 수출량(Q)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기차의 수출량이 58.3만 대로 동기대비 110% 급증한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해외 수요와 중국 내수 상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월 중국 승용차 수출량은 56% 증가했지만, 동기간 소매 판매량은 26% 하락했다. 이는 해외로의 자동차 물량 공세가 필연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Non-US 국가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수출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칼럼의 재해석

김아현 연구원

저가 드론 시대와 천궁-II의 실전 증명 (Financial Times)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전쟁 패러다임이 고비용 미사일 중심에서 저가형 공격 드론 중심의 소모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란은 초기 수백 발의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으나, 현재는 기당 3만 달러 수준의 샤헤드 드론을 활용해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드론의 극히 낮은 단가 대비 수억 원대 요격탄 소모라는 비용 비대칭은 방어측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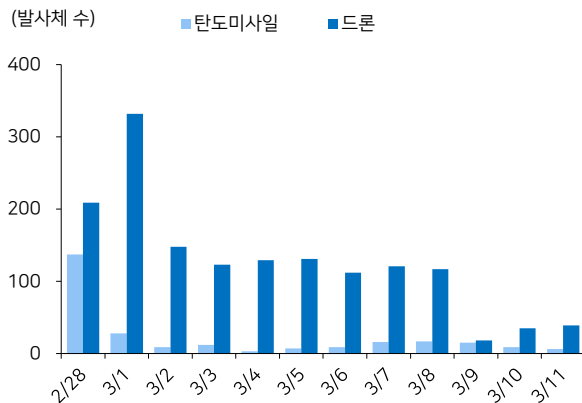
이 같은 전환 속에서 LIG넥스원의 천궁-II가 실전 검증된 핵심 방공 자산으로 부상했다. UAE에 배치된 천궁-II는 약 60발의 요격 미사일로 96%의 성공률을 기록, 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 요격미사일 단가가 PAC-3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동일 예산으로 3배 이상의 물량 운용이 가능하다. 공급 측면에서도 PAC-3의 4~6년 납기 지연과 달리, 천궁-II는 2교대 기준 9~12개월 내 증산이 가능해 수요 대응력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32조원 수주잔고와 확대되는 수출 비중을 기반으로 K-방산은 단순 수출업체를 넘어 서방 안보 공급망의 구조적 파트너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중동 전쟁 패러다임 변화 – ‘드론’이 주도하는 소모전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분쟁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란과 걸프국 간 교전에서 과거 주류였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비중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저가형 공격 드론이 채우고 있다. 전쟁 초기(2월 말~3월 초)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으나, 3월 4일 UAE를 향해 겨냥한 미사일은 단 3발에 그쳤다. UAE 국방부가 공개한 일일 투사체 탐지 추이를 보면, 공세의 규모와 성격이 뚜렷이 달라졌다.

드론은 미사일보다 탑재량이 작아 파괴력은 낮지만, 단가(수백만 원대)가 극히 낮고, 대량 생산·동시 발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발의 미사일 요격에는 수억 원대 요격탄이 여러 발 소비되는데, 드론 요격은 비용 대비 효율이 극히 높아 방공 시스템에 구조적 불균형을 강요한다. 특히 기당 3만 달러 수준의 ‘샤헤드(Shahed)’ 드론을 앞세워 서방 방공망을 압박했고, 광범위한 생산 시설을 유지하며 전쟁 중에도 드론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1 UAE 탄도미사일 발사 급감, 드론 공격은 여전



자료: UAE Ministry of Defen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비용·유연성·지속성에서 앞서는 공격형 드론의 시대

구분	탄도 미사일	공격형 드론
단가	\$500만~\$1,500만	\$2만 ~ \$5만
운용 전략	정밀 타격, 심리적 충격	물량 공세, 방공망 포화, 경제적 소모 유도
현재 동향	발사 횟수 급감 (수백 발 → 3/4 UAE항 3발)	압도적 다수 차지, 일일 투사체 대부분
감소/증가 배경	미·이 공습으로 발사대 및 비축분 파괴, 재고 소진	생산 시설 분산, 대량 생산 가능, 전선 유지 용이
공급망 제약	PAC-3 (연간 생산 620발, 납기 5년)	천궁-II (9~12개월 내 증산 가능)
지속 가능성	낮음 (월 100발 미만 생산)	높음 (월 10,000대+ 생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전에서 증명된 K-방산 정점 '천궁-II'

이러한 드론·미사일 혼합 공세 속에서 한국 LIG넥스원의 주력 제품인 천궁-II (M-SAM II)가 전략적 수혜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궁-II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에 수출됐으며, 경쟁 제품 미국 패트리엇 PAC-3와 유사한 중거리 요격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운용 비용이 현저히 낮다. UAE에 배치된 천궁-II 2개 포대는 약 6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분쟁 이전까지는 실전 검증 사례가 없었으나, 이제 성능이 입증되어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IG넥스원 주가는 2월 말 분쟁 시작 이전보다 43% 상승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11%대를 바라보고 있다. 32조원 규모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성장의 시작으로 분석된다.

그림2 중동 3개국에 K방공벨트를 구축한 LIG넥스원 천궁-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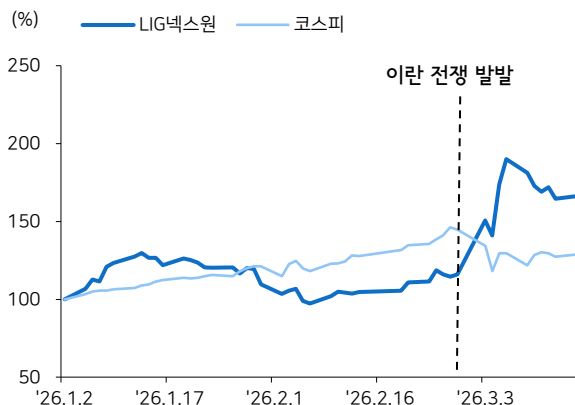
자료: LIG넥스원

그림3 UAE 천궁-II, 3/17 이란 탄도미사일 하루 10기 요격



자료: 언론종합

그림4 이란 전쟁 발발 이후 LIG넥스원 주가 43% 상승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의 압도적 경쟁력

구분	미국 패트리엇 (PAC-3)	한국 천궁-II (M-SAM II)
제조사	록히드 마틴 / 레이시온	LIG넥스원 / 한화 그룹
1발당 가격	약 370만 달러 (54억원)	약 110만 달러 (16억원)
인도 기간	4~6년 이상	1~2년 (가속 시 9개월)
최근 요격률	약 80~90% (조건별 상이)	96% (UAE 실전 기록)
요격 가성비	방어자 심각한 재정 부담	방어 지속 가능성 확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방산의 전략적 분기점이 될 2026년

2026년 중동 전장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파괴력 극대화’에서 ‘비용 효율적 소모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이란이 미사일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방공망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하다. 요격탄과 공격 드론 간 극단적 비용 비대칭이 방어측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천궁-II에 열어준 기회는 구조적으로 필연이다. PAC-3의 공급 병목과 높은 탄약 소모 비용이라는 이중 제약을 안고 있는 걸프 국가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방공망 재구성이 시급한 유럽 - 천궁-II는 이 두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검증된 체계다. 96%의 실전 요격 성공률은 가장 강력한 협상 언어이며,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지위·NATO 군수체계 편입·중동 현지화 정책과의 정합성은 K-방산이 단순 수출업체를 넘어 서방 안보 공급망의 구조적 파트너로 진입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생산 역량의 선제적 확충이다. 2교대 기준 9~12개월 내 증산 가능이라는 평가는 현 수요 수준을 전제로 한 것으로, 중동·유럽·아시아의 수요가 동시에 급증할 경우 공급 병목은 경쟁 우위를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둘째, 하드웨어 우위의 소프트웨어 심화다. 차세대 전장은 AI 기반 위협 분류, 다층 방공망 통합 운용, 항재밍 역량을 요구하며, 천궁-II 중심의 한국형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AMD) 아키텍처를 조기에 확립해야 후속 세대의 협상력 역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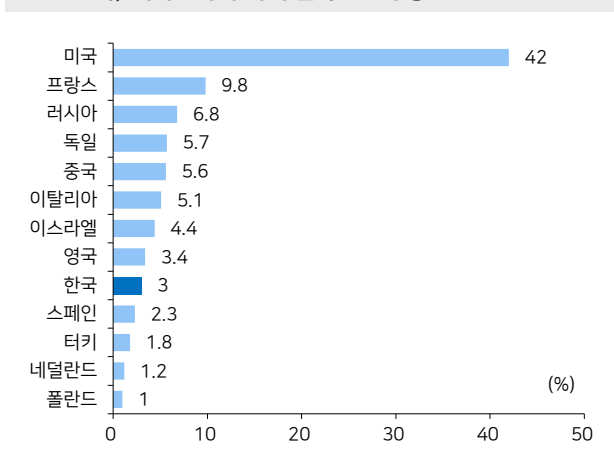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이 촉발한 방공 시장의 구조 재편은 K-방산에 일시적 수혜가 아닌 장기적 포지셔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30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 여부는 수주 실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 고도화, 외교적 신뢰, 내부 거버넌스 - 이 세 축이 균형을 갖출 때 비로소 K-방산은 분쟁의 수혜자가 아닌, 글로벌 안보 질서의 능동적 설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한국 방산 기업의 지정학적 확산

구분	도입 품목	계약 규모	전략적 의미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약 220억 달러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사우디	천궁-II	약 32억 달러	중동 최대 방공망 시장 확보
노르웨이	천무	약 20억 달러	NATO 회원국 내 미국산(HIMARS) 대체
에스토니아	천무 발사대	약 2.9억 유로	발트해 연안 방어선 구축 참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



자료: SIPR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Iran war lifts K-defence company offering cheap Patriot rival (Financial Times)